

NEWS LETTER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지역교육협력학과

SINCE 2020 DEPARTMENT OF REGIONAL EDUCATION COOPERATION



교수논단

코로나19 전후 강원도의 교육격차 실태/신철균(강원대학교 교수)



우리마을 교육이야기

마을교육공동체 날다학교와 넘나드는 교사들 / 김기수(강릉 운양초등학교 교사)



전국의 마을교육활동가를 만나다

박누리(지역문화 활력소 고래실 편집국장) / 박연화(안남 배바우도서관)



재학생 기고문

재학생들이 바라본 지역교육협력학과의 비전과 목표 /오창세(석사과정)
대학원생 자치회 활성화 방안 /이선주(석사과정)



알쓸교원

알아두면 쓸데있는 교육 원리 이야기 / 효과성, 효율성, 효용성



'What a Wonderful World' 세계의 교육이야기

[일본]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과제해결형 학습'



교육연구소 행사

2021년 국가교육회의 지역혁신소위원회 참석



교육연구소 알림

2021 SuperVision for Gangwon 행복교육지구사업 종합평가보고서 5종 발간

2021 Teach for Gangwon 온라인 멘토링 프로그램 종료

<http://keri.kangwon.ac.kr/>



교수논단

코로나 19 전후 강원도의 교육격차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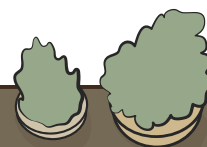
신철균 (강원대학교 지역교육협력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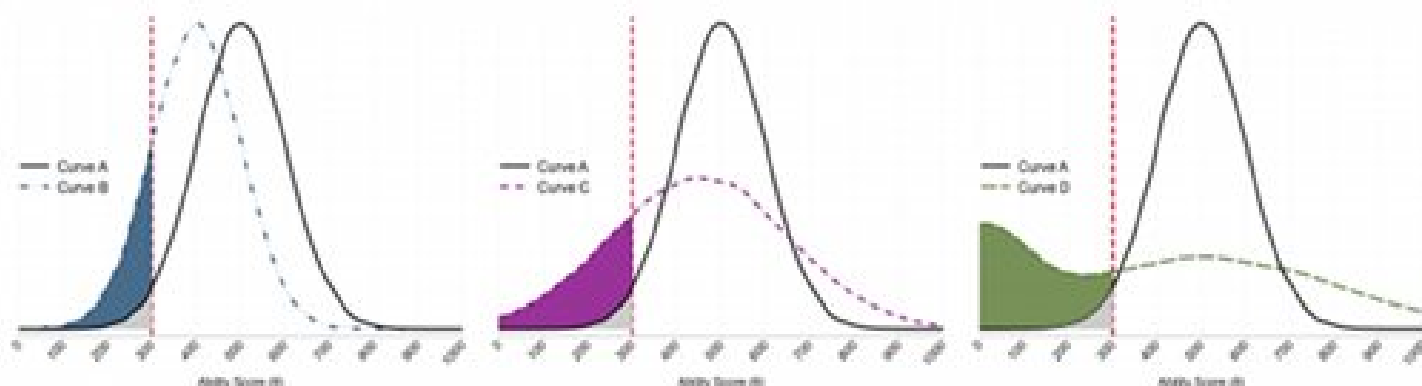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 일상을 힘들게 하고 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2020년 4월 기준 전 세계 172개국에서 학교를 전면 폐쇄하였고(UNESCO, 2020a), 전 세계 학생들의 84.8%인 약 1억 4,847만 명의 학생들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다(장상현 외, 2020). 그 여파는 아직까지 진행중이다. 코로나19로 학교 수업의 정상화가 어려워, 여기저기서 교육격차에 대한 우려가 크다. 그럼 강원도는 코로나로 인한 교육격차가 어떤 상태인가?

코로나 전후 강원도 중학생의 교육격차에 대한 핵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상위권 감소와 하위권 증가의 학력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대체로 상위권은 감소하고 하위권이 주로 증가하는 하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서울시는 코로나19 이후 상위권과 하위권이 동시에 증가하는 양극화 현상이 대두된다. 월드뱅크에서 교육격차 관련하여 제시한 아래의 그래프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강원도의 교육격차 상황은 첫 번째 그림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이동하는 학력 하향세를 보인다. 서울은 두 번째 그림처럼, A와 E등급이 늘어나며 중위권이 감소하며 곡선이 평평해지는 모양새를 띤다. 세 번째 그림은 1997-98년 아시아 금융 위기와 1916년 소아마비 전염병과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학교 등록이 급격히 떨어지고 퇴학이 늘어나는 현상과 연관되어 있다(World Bank, 2020.4.13.). 이 같은 결과의 차이는 사교육의 접근성 및 공급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사교육 접근성이 서울에 비해 낮고 그 안에서의 차이가 크지 않아 전반적으로 학력이 하향한 추세를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 본 원고는 저자가 집필한 “코로나19 전후 강원도 중학생의 학력격차 분석” (신철균 외, 2021, 강원도교육연구원)과 강원교육 컬럼(2021, 제80호, 강원도교육연구원)을 수정 및 요약한 것임.





[그림 1] 코로나 상황에서의 학습곡선 시나리오
(출처: World Bank, 2020.4.13.)

둘째, 읍·면지역의 중위권 비율이 도시(동)보다 높았으며, 도시(동)의 하위권 E 등급이 대폭 증가하였다. 도시(동)보다 읍·면지역의 중위권 비율이 더 탄탄하게 나타났다. 줄어든 중위권 비율을 살펴보고자 등급별 비율 변화량 결과를 살펴보면, 도시(동)지역 학교들은 코로나19 이후 A-D등급은 감소하고 E등급은 대폭 증가하면서 중위권 감소와 함께 학력 하향의 양상이 나타났다. 특히 수학교과는 코로나19 이전(2018년, 2019년)에는 지역규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가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에 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읍·면지역이 도시(동)보다 높았다.

마지막으로, 등교일수가 많은 학교는 등교일수가 적은 학교에 비해 하위권 비율이 덜 증가하였고 중위권 비율이 높았다. 등교일수에 따른 집단(등교일수를 4분위수로 나눈 후 집단 구성)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등교일수가 많은 학교들은 등교일수가 적은 학교들에 비해 국영수 모두 하위권 E등급 비율이 상대적으로 덜 증가하였다. 수학과 영어교과에서는 등교일수가 높은 집단(4분위)에 속한 학교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중위권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 상황의 등교와 교육격차에 대한 연구를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해외에서는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가 있는데, 학교의 전면등교중단으로 중학교는 물론 초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성적이 5~8%로 하락한 결과가 나왔다(Champeaux, et. al., 2020). 그리고 월드뱅크 자료에 제시되어 있듯이 전쟁과 전염병 등과 같은 사회적 위기 상황은 학생들의 학습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특히 취약계층에 더 큰 손실을 안겼다(World Bank, 2020.4.13.). 강원도는 소규모 학교가 많기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학교에 등교하여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등교를 하는 것이 무조건 정답일 수는 없지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학교에 간다’는 ‘등교’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새기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즉 등교일수가 많은 학교들의 긍정적 결과를 밝힌 본 연구는 일상적인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재확인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럼 앞으로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 유네스코가 코로나 상황에서의 교육적 대책에 대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은 불평등에 맞서는 방파제”(“Education is a bulwark against inequalities”)라고 표현하였다(UNESCO, 2020b). 즉 코로나 상황에서 공공재로서의 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며, 건강 분야에서처럼 교육 분야에서도 모두가 안전할 때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우리의 학생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잃어버린 세대”(lost generation)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다양한 취약성에 직면한 학생들을 돌봄 등의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교육할 지에 대한 실천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학교 대면 수업과 등교 확대가 필요하다. 물론 교사·학생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일부 진행 중이고 과밀학급이 많은 학교에 대한 감염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방역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하면서 등교확대를 추진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둘째, 현재의 원격교육 실효성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면수업이 아닌 원격 학습 시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방법 활용과 학생들이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 필요하다. 셋째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기초학력전담교사제 제도화 등 학습 결손이 누적되지 않도록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기초학력전담교사제 제도화를 통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에 대한 전폭적인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학급당 학생수 적정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학급당 학생수를 OECD 기준으로 낮추고 이를 통해 학생들에 대한 개별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바이러스라는 예기치 못한 침입자가 우리를 흔들고 있다. 이를 통해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즉 모든 학생들이 낙오없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앞으로 우리는 모든 학생들에게 최적화한 교육 방식을 찾는 유연함으로 불확실성을 돌파하며 교육격차를 극복해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신철균(2021). 코로나19 전후, 강원도의 교육격차 어떠한 상황인가?. 강원교육 80호. 강원도교육연구원.
 신철균, 위은주, 안영은(2021). 코로나19 전후 강원도 중학생의 학력격차 분석. 강원도교육연구원 이슈페이퍼. 강원도교육연구원.
 장상현 외(2020). SDG4 관점에서 한국의 COVID-19 대응 진단 및 Post COVID-19를 위한 제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Champeaux, H., Mangiavacchi, L., Marchetta, F., & Piccoli, L. (2020). Learning at Home: Distance Learning Solutions and Child Development during the COVID-19 Lockdown. IZA Discussion Papers, No. 13819, Institute of Labor Economics (IZA), Bonn.
 UNESCO(2020a). Global Education Monitoring Report 2020. Inclusion and Education: All means all. Paris. UNESCO.
 UNESCO(2020b). Education in a post-covid world: Nine ideas for public action. UNESCO.
 World Bank(2020.4.13.). We should avoid flattening the curve in education: Possible scenarios for learning loss during the school lockdowns. World Bank.

우리마을 교육이야기

마을교육공동체 날다학교와 넘나드는 교사들

김기수 (강릉청소년마을학교 날다 총괄교사, 강릉 운양초등학교 교사)



저는 학교 안과 학교 밖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운양초등학교에서 1학년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강릉청소년마을학교 날다 선생님이 됩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부터 고등학생 청소년까지, 강릉에 사는 청소년들을 만납니다.

이웃과 함께 만드는 마을교육공동체 날다학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했고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날다학교는 코로나19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코로나19로 드러난 여러 문제를 직시했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의 역할을 되짚는 것은 물론, 아이들이 겪는 교육격차와 문화소외에 집중했습니다. 그 덕분에 올해 더 큰 날갯짓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청소년마을학교 날다는 올해 6년 차 마을교육공동체입니다. 강릉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문학과 살아있는 경험으로 배우는 청소년 마을교육공동체로 삶의 가치와 공동체를 생각하는 주체적 민주시민을 목표로 합니다.



날다학교는 학교 안에서 마주한 문제를 학교 밖에서 해결하기 위한 교사와 학부모들의 도전으로 시작됐습니다. 학교 안 아이들의 삶은 부모의 소득과 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 결과 학교 안에서도 계층과 갈등이 존재합니다. 경제적 자본의 양극화는 사회문화 자본을 양극화하고 인문학적 경험의 빈곤을 낳습니다. 가정환경으로 문화소외를 겪고 있는 아이들이 다양한 사회문화 자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입시 중심 생존이데올로기에 빠져 영혼의 빈곤을 겪는 아이들에게 마음의 풍요로움을 더하고자 날다학교를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넘어 마을에서 교육을 합니다. 입시를 넘어 삶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아이들은 날다학교에서 크게 네 가지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우리가 계획해서!' 프로젝트학교, '시대와 소통하는 민주주의학습, 시민성을 키우다!' 민주시민포럼, '사람을 읽다. 관심 있는 분야의 전문가와 만남!' 사람책 도서관. 마지막으로 '정의로운 청소년들의 세상을 향한 당찬 수다!' 정세청세 인문토론입니다. 민주시민포럼과 정세청세 인문토론은 사회적 문제나 인문학적인 주제를 공부하고 토론합니다. 프로젝트학교와 사람책 도서관에서는 아이들이 강릉의 사회문화 자본을 직접 경험합니다.

날다학교는 다양한 주체가 아이들의 배움을 위해 함께 합니다. 사회문화자본의 핵심인 이웃과 학부모는 물론 30여명의 현직 초, 중,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길잡이 교사란 이름으로 함께 합니다. 이웃은 마을교육공동체의 핵심입니다. 마을을, 마을을 통해, 마을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에서 마을활동가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마을활동가만큼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직접 마주하는 선생님들은 학교 안에만 갇혀 있는 아이들을 학교 밖 새로운 배움으로 연결해줄 수 있는 직접적인 연결고리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날다학교는 지난 번과 다른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날다학교 아이들은 대부분 학교의 안내 또는 학부모의 권유, SNS 및 포스터를 보고 참여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길잡이 교사로 참여하는 선생님이 상당히 많은 아이들을 날다학교에 데리고 왔습니다. 학기 초 아이들을 만나고 문화소외를 겪는 아이들을 날다학교와 직접 연결했습니다. 학교 안과 학교 밖을 넘나드는 교사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길잡이 교사들의 역할은 아이들을 날다학교와 연결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학교 밖에서 아이들의 배움을 함께 합니다. 마을 이웃과 아이들의 배움을 함께 고민합니다. 매일 만나는 아이들, 당연했던 교실과 수업이 아니기에 길잡이 교사가 마주하는 모든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고민을 안고 나누는 교사회가 있어 조금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와 경험은 물론 초, 중, 고등학교 서로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이 모인 날다학교 교사회는 길잡이 교사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습니다. 아이들의 성장과 배움뿐만 아니라 교사인 '나'의 성장도 돕습니다. 작년부터 지역 대학교 예비 교사가 함께 합니다.

올해는 강릉을 넘어 양양과 동해 지역 선생님들이 참여해 날다학교 교사회는 교사 커뮤니티로 더욱 많은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교사 커뮤니티의 확장은 마을 이웃들과의 촘촘한 관계를 토대로 더 많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인 교육격차를 심화했습니다. 교육격차 심화 해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넘어 미래교육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학습 소외, 문화 소외를 모두 살피야 합니다. 학교 안에서는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 밖에서는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학교 안에 아이들과 교육과정을 깊이 들여다보기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있듯 학교 밖에도 교사들의 커뮤니티가 있어야 합니다. 날다학교 교사회는 앞으로 수 없이 생겨날 학교 밖 교사 커뮤니티의 한 모습입니다.

교육격차 심화는 물론 코로나19가 드리운 여러 교육 문제들은 해결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학교 안과 학교 밖을 넘나드는 교사들에게서 희망을 찾습니다. 이웃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날다학교와 날다학교에서 활동하는 길잡이 교사가 코로나19 넘어 미래교육, 새로운 학교의 영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려운 시기 강릉에서 만드는 작은 날갯짓이 코로나19로 지친 모두에게 위로의 바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날다학교는 다양한 주체가 아이들의
배움을 위해 함께 합니다."**

전국 마을교육활동가를 만나다!

01

박누리

지역문화활력소 고래실
편집국장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클릭!



02

박연화

안남 배바우도서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클릭!



재학생들이 바라본 지역교육협력학과의 비전과 목표

석사과정 오창세 선생님

2020년 3월 국내 최초로 개설된 강원대학교 지역교육협력학과는 지역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교육적 시각으로 접근하여 해결하기 위해 개설되었다.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연구자와 실천가로서 ‘지역교육협력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커리큘럼을 운영 중이며 지역발전을 위한 창의적 융합 인재 양성의 거점센터 역할을 준비 중이다.

현대 한국 사회의 현안인 지역소멸은 그동안 많은 예산과 국가 차원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해결책을 찾기 힘들었다. 이에 교육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지역교육협력학과는 그 첫걸음을 함께하는 지역교육협력학과의 1기 재학생들과 함께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며 목표 지점을 세워보고자 한다.

우리 학과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학과의 주요 구성원들이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파견된 다양한 직군이라 학과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이다. 초·중등 교원, 전문직, 행정직의 다양한 시각은 지역의 현안에 새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 연구와 실행의 과정에서 융합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다양한 현안들을 지역에 뿌리를 둔 학생들이 연구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초라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기 때문에 관련 연구기반과 이론적 틀이 부족하며 학과의 정체성 또한 모호한 편이다. 학과생 대부분이 교육직에 종사하고 있어 연구의 흐름이 지역보다 교육청 중심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약점으로 생각된다.

외부적으로는 지역소멸에 대한 공통적인 문제 인식으로 지역과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이 가능하며, 현재 다양한 형태로 구축 중인 민관학 거버넌스를 위한 길잡이 임무를 수행할 기회를 얻고 있다. 반면 외부가 학과에 가진 기대가 복합적이고 안정적이지 않으며, 지역의 문제를 지역교육으로 해결한다는 학과의 목표가 달성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품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SWOT 분석을 바탕으로 재학생 시선에서 생각해본 지역교육협력학과의 나아가야 할 방향은 첫 번째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중심연구센터 역할이다. 학생들은 연구자로서 마을 교육공동체 발전 방향과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세우고, 활동가로서 각 지역의 네트워크 구축에 앞장서야 한다. 두 번째로 지역사회에 세워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 활동가와 함께하는 프로젝트 운영이다. 지역 활동가와 공동 연구는 선도학과로서 다양한 연구사례를 축적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러한 경험은 지역 활동가가 대학원 커리큘럼을 경험하여 연구자로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에서 시작되는 지역발전정책 제언이다. 학교와 마을이 함께 지역의 문화를 세우고 발전시키는 것이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다는 지역의 요구를 정책화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세워나가야 한다.

지역교육협력학과는 ‘지역’과 ‘교육’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토대로 이제 막 첫걸음을 시작하고 있다. “시작은 그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플라톤의 격언처럼 이제 막 내딛는 걸음들이 앞으로 학과의 미래에 미칠 영향력을 생각할 때 모든 구성원들의 노력과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할 때다.



대학원생 자치회 활성화 방안

석사과정 이선주 선생님

I. 학생자치회 부서 구성	II. 학술 동아리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1. 총무부 - 대학원 학생회, 예산 담당2. 교육사업부 - 교육연계 사업 관련 활동3. 지역사업부 - 지역연계 사업 관련 활동4. 기획부 - 대학원 교육과정 안내, Newsletter5. 홍보부 - 영상 콘텐츠 제작, 비대면 홍보 활동6. 문화부 - 학과 문화행사 기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1. 관심주제별 동아리 구성2. 연구방법별 동아리 구성3. 지역별 답사 프로그램 개발4. 사범대학생 연계 프로그램 개발5. 지역교과서 분석(초등)6. 동아리 대표학생 및 동아리별 지도교수 섭외
III. 교수-학생-대학 운영 협의체 구성	IV. 동문 네트워크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1. 교수-학생-대학(원) 정기적 협의2. 협의 결과 홍보 (Newsletter)3. 학과협력사업 운영 협의4. 대학원 교과목 개설 대학원생 의견 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1. 동문 온라인 네트워크(밴드, 카페 등) 형성2. 동문의 밤(개강-종강 시 졸업생, 재학생 만남)3. 지역별 교육활동가 네트워크 형성4. 지역별 동문회 구성(영동/영서)5. 기수별 대표학생 선출 및 경조사 공유

7월 3일 열린 행복교육지구사업 컨설팅 성과평가회 행사 중 모둠활동으로 ‘대학원생 자치회 활성화 방안’을 토의하였다. 우선 타 대학원에서도 학과 자치회가 존재하는지, 또는 활동하는 사례가 있는지는 검색만으로 찾기 어려웠다. 또한 자치회 부서는 일단 구성이 되면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내는데 부담감도 있었다. 모듬원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만다라트 토의판을 채워나갔고, 다른 모듬 대학원생들의 의견도 참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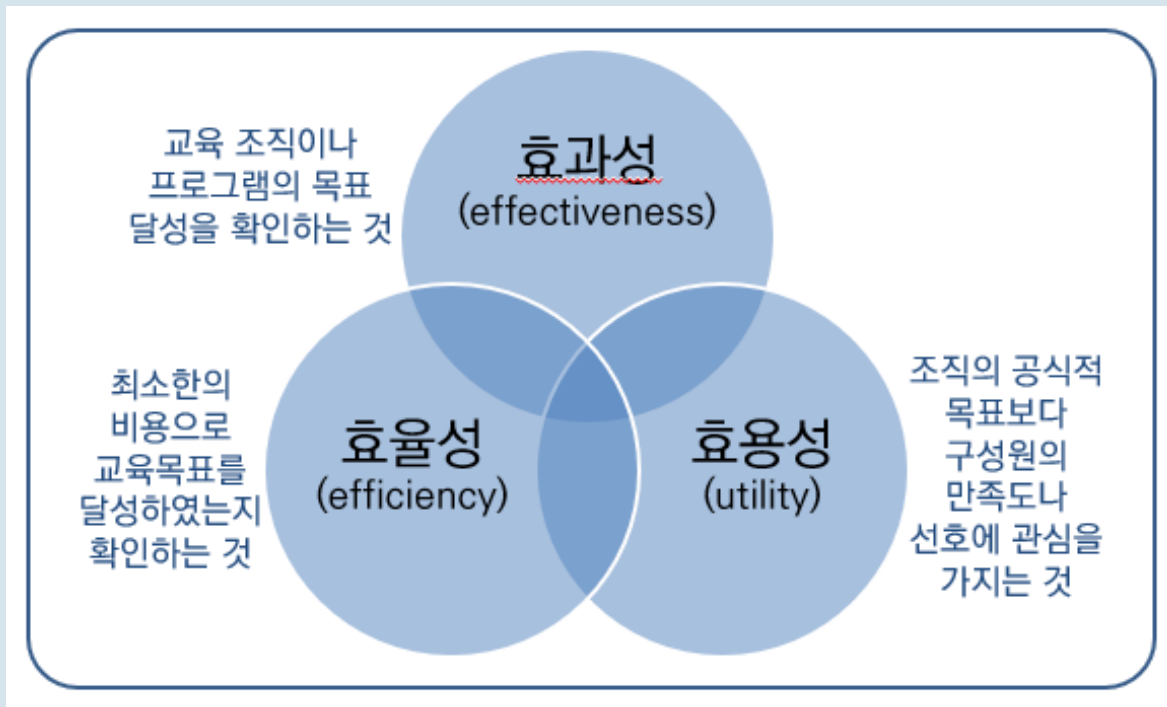
학생자치회 부서 구성에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된 부분은 기획, 홍보부에서 영상 콘텐츠 제작이나 뉴스레터 제작 등의 활동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 대학원생 대부분이 영상에 익숙한 세대이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홍보 활동이 가능하므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예전처럼 서로 만나 의견을 나누며 협업하기 어렵고, 영상 제작 작업을 자원할 대학원생을 찾기가 매우 힘들 것이라는 단점은 있다. 학술 동아리 구성은 관심 주제별, 연구 방법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동아리별 지도교수님을 섭외하고 활동을 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교수-학생-대학 운영 협의체 구성은 학과협력사업 운영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고, 협의 결과를 학과생들이 참고하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출발하였으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었다. 마지막으로 지역교육협력학과 1기 대학원생으로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동문 네트워크 구축이었다. 졸업 후에도 온라인 네트워크로 서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되었고, 학과 동문들이 각자의 지역에서 지역교육을 위해 크고 작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토의 결과로 나온 다양한 방안을 모두 추진하기는 어렵겠지만,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몇 가지 만이라도 선택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았으면 한다.



효과성(effectiveness), 효율성(efficiency), 효용성(utility): 의미와 관계

남수경(강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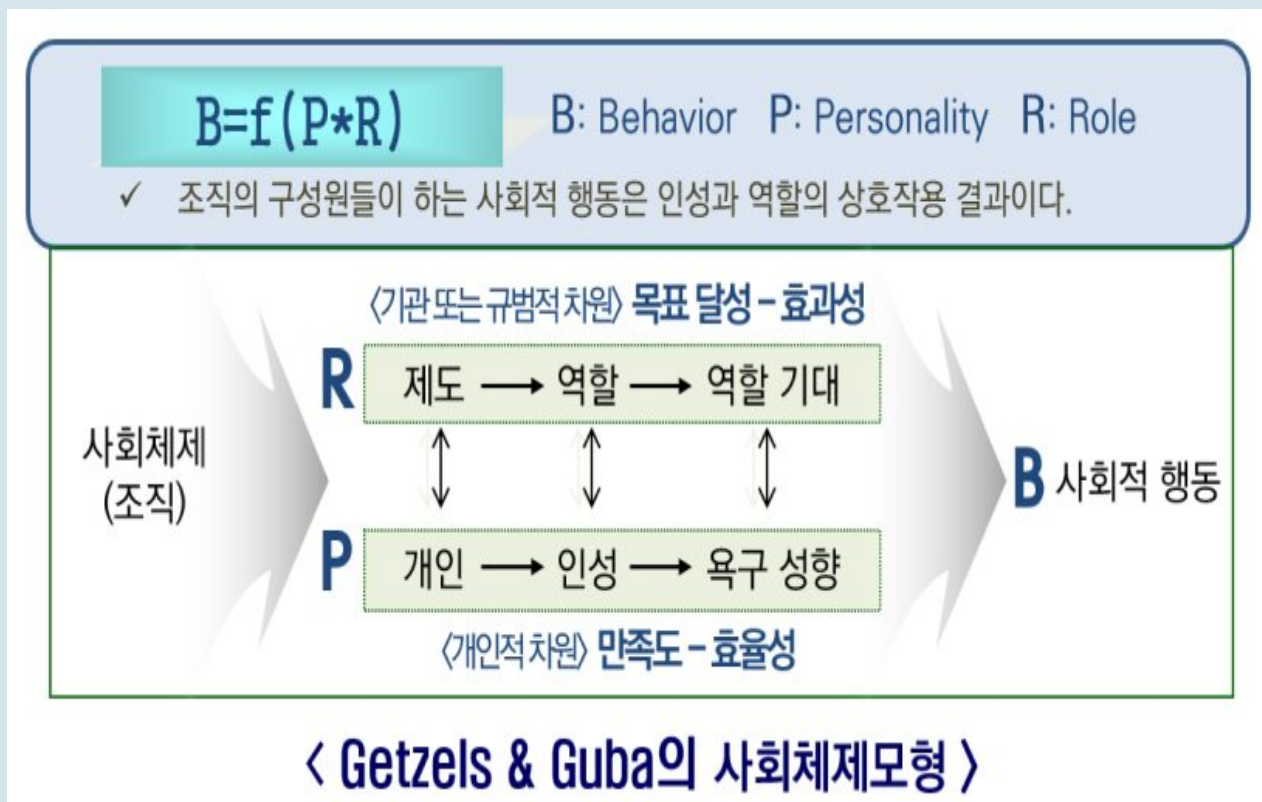
"공적인 재원이 투입되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은 결국 효과성, 효율성, 효용성의 가치를 따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한, 교육 참여자들은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는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



■ 행정·평가론적 관점에서 '효과성'의 의미와 '효율성'과의 관계

「교육학 용어사전」에서 효과성은 'effectiveness of educational organization'으로 표기되어 있다. 효과성은 활동의 주체로서 '조직'이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기대되었던 조직의 목표가 실제로 달성된 정도'를 의미한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편), 1987: 810). 또한 효과성이라는 용어는 'effectiveness of educational program', 즉 특정한 교육 프로그램이 의도한 목표를 잘 달성했는지를 측정하는 교육목표에 대한 달성정도를 평가하는 기본 원리로 활용된다.

한편 행정학적 관점에서 효율성(efficiency)이란, 조직 차원의 목표달성 정도를 의미하는 효과성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조직 구성원의 개인적 욕구가 충족된 정도’, 즉 ‘심리적 만족도’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효과성과 효율성의 개념 구분은 겐젤스(J. W. Getzels)와 구바(E. G. Guba)의 사회체제모형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들은 사회적 행위를 기관 또는 규범적 차원에서 기대되는 역할과 개인적 차원에서의 인성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이때 기관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충족시키는 정도는 효과성으로, 개인의 인성에 따른 요구를 만족시키는 정도는 효율성으로 정리하였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편), 1987: 811).



■ 경제학적 관점에서 ‘효율성’의 의미

그러나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접하는 효율성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정의되는 개념이다. 즉, ‘경제학의 궁극적 목적은 효율성 추구에 있다’고 할 때, 효율성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상태 또는 주어진 양을 생산할 때 최소의 비용을 들이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때의 효율성은 협의의 효율성으로 내적 효율성(internal efficiency)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교육에 적용되는 내적 효율성은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인가’와 관련되는 것으로, 교육현상을 투입과 산출의 관계로 파악하고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오는 방안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광의의 효율성은 외적 효율성(external efficiency)을 의미하는데, 교육의 외적 효율성은 교육체제를 통해 배출된 인적 자원이 과부족 없이 노동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분야와 경제분야간 협조를 통한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의미한다. 교육의 외적 효율성은 교육과 생산성, 교육과 임금수준, 교육과 현직훈련, 교육과 고용의 안정성 문제 등과 같이 교육과 노동시장 전반에 걸친 구조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교육의 외적효율성은 좁게는 인력수급 정책에 국한시켜 이해할 수도 있으며, 넓게는 개인소득 증대와 국가 경제성장을 연계시켜 이해할 수도 있다(백일우, 2000).

■ 효율성 개념의 변화와 ‘효용성’의 의미

효율성은 개념적으로 시대적 흐름 속에서 현상 설명 방식과 그 범위에서 변화를 거쳐 왔다. 과학적 관리론의 영향을 많이 받은 초기 효율성의 개념에는 경제학적 의미, 즉 최소의 노력과 시간, 경비로 최대의 결과와 서비스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1940년대 이후 효율성은 경비보다 조직구성원의 만족감, 시민의 만족과 같은 다원적 이익, 조정의 절차 등 종합적 관점에서 평가되는 준거의 성격으로 변화되었다. 효율성은 양적인 개념에서 질적인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다(주삼환, 1998: 27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학적 의미의 효율성이 평가준거로서 널리 사용되는 이유는 계량화에 따른 측정의 편리성 때문이다.

한편 질적인 개념으로서 효율성은 효용성(utility)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 효용성은 비교와 선택에 사용되는 주관적 선호도 내지 만족의 정도를 의미한다(김남순, 2001: 262; 정태범, 2001: 285). 예를 들어 학습자가 스스로 비용을 지불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할 경우, 교육 프로그램 자체의 가치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선호도와 필요, 심리적·환경적 상태가 선택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을 경우 효용성이 큰 프로그램을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다.

■ 효과성, 효율성, 효용성의 관계

결국 효과성과 효율성, 효용성의 차이는 관심의 초점이 산출에 있느냐 과정에 있느냐로 요약할 수 있다. 평가준거로서 효과성은 조직이 원래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했느냐 못했느냐, 어느 정도 달성했느냐에 의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투입이나 과정에서의 시간이나 노력, 자원보다는 결과에 관심을 두는 것이며, 효용성은 얼마나 만족스럽게 달성되었느냐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반면 평가준거로서 효율성은 얼마의 노력과 시간, 자원을 들어서 목표를 달성했느냐 하는 투입과 과정을 더 중시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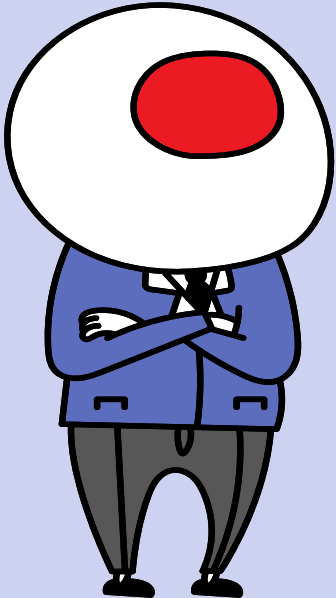
한편 효과성이 조직의 목표 달성이라고 할 때 ‘목표’가 지니는 ‘양면성’을 보다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효과성과 효율성, 효용성은 하나의 틀 속에서 설명될 수 있다. 사회체제모형에서 효과성은 조직 그리고 조직 목적 내지 목표의 달성에 강조점이 실린 반면, 효율성과 효용성은 개인 그리고 개인적 동기의 만족에 비중이 실린 개념이라고 구분하였다. 그런데 효과성이 목표 내지 목적에 대한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때 ‘목표’라는 개념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그 하나는 교육기관에서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공식적 목표’이고, 다른 하나는 운영하는 기관이나 연수에 참여하는 개인의 ‘실질적 목표’, 즉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혹은 선택하는 동기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공식적 목표는 모든 학생들의 전인적인 잠재력의 성취와 같이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형태로 기술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현직 재교육이나 기업 교육 등에서 실시되는 교육 프로그램은 보다 구체적인 목표로 기술되고 교육내용에 반영됨으로써 공식적 목표가 곧 실질적 목표가 된다. 효과성의 평가는 결국 실질적 목표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활동이어야 하며, 실질적 목표, 즉 개인의 프로그램 참여 동기 등을 밝히고 그것이 얼마나 만족스럽게 달성되었는가를 평가하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어야만 한다. 결국 만족스러운, 즉 효율성과 효용성이 큰 프로그램이 곧 목표가 달성된, 즉 효과성이 큰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참고문헌]

김남순(2001), 교육 비용-효용 분석,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편), 교육재정경제학 백과사전, 서울: 하우동설.
 백일우(2000), 교육경제학, 서울: 학지사.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편)(1987), 교육학 용어사전, 서울: 하우.
 정태범(2001), 교육생산성,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편), 교육재정경제학 백과사전, 서울: 하우동설.
 주삼환(1998), 학교교육의 효과성과 효율성,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편), 교육학 대백과사전, 서울: 하우.

[일본]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과제해결형 학습'



▶ 도쿄(東京)도 시부야(渋谷)구는 '다름을 힘으로 바꾸는 마을(ちがいをちからに変える街)'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해당 구의 과제를 학생들이 주민들과 함께 생각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제 해결형학습 '시부야과(シブヤ科)'를 실시하고 있음. 모든 학교가 활용가능한 공통 프로그램 없이 각 학교가 수업내용을 독자적으로 고안한다고 함.

▶ 해당 구의 요요기중학교(代々木中学校)는 3년 전부터 '시부야과'를 실시하고 있는데, 1학년은 "남을 알고 자신을 안다.", 2학년은 "마을에 대해 배운다.", 3학년은 "시부야의 매력을 세계에 알린다."라는 각각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연간수업계획을 각각 세우고 있음.

▶ 요요기중학교의 시부야과 수업은 지역주민이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를 맡고 있는데, 해당 중학교의 지역 담당자가 중심이 되어 매년 지역의 인재를 모집하고 있음. 카와카미(川上) 교장은 "본 교 시부야과는 각 학년의 목표에 맞게 강연회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민 퍼실리테이터의 인맥 덕분이며, 이러한 인맥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라며 지역과 연계하는 학습의 장점을 언급하였음.

▶ 또한 카와카미 교장은 "학생들의 의견을 매우 존중하며, 일단 부정하지 않고 어떤 의견이라도 경청한다."라고 하였으며, 코마자와(小間澤) 교사도 "교사들은 자신만의 수업 형태를 갖고 있어서 거기에 집착하는 부분도 있는데, 주민 퍼실리테이터는 자신의 직업과 연결시켜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듣는다."라고 하며 교사들이 큰 자극을 받고 있다고 하였음.

▶ 7월에 실시된 2학년 시부야과는 4개 학급에 NPO법인 대표, 일반사단법인 대표 등 다양한 주민 퍼실리테이터가 시부야구에서의 활동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생들과 교류하였음. 이후 학생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시부야의 문제'를 발표했는데, 1반은 "자연이 사라지고 있어 놀러갈 곳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게임센터에만 간다.", "자동차와 자전거로 교통량이 너무 많다.", "마을에 쓰레기가 많다." 등 130가지 이상의 문제가 나왔으며 이를 '학교', '공공시설', '길', '사람', '환경'의 영역으로 분류하였음. 학생들은 조를 편성하여 분류한 문제에 대해 해결방법을 모색하였는데, 주민 퍼실리테이터가 곁에서 조언을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음. 주민 퍼실리테이터는 수업이 끝날 무렵에 학생들에게 각각 흥미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제출하고, 여름방학 중에 본인이 선택한 주제를 조사할 것을 강조하였음. 9월 이후에는 주제별로 조를 구성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인터뷰나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내년 1월에는 조별로 문제해결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였음.

▶ 코마자와(小間澤) 교사는 "학생들은 원래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는 열심히 잘한다. 그러나 시부야과는 스스로 과제를 발견해야 한다. 또한 탐구하는 힘이 필요한 수업이다 보니 학생들이 다양한 발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수업에서 교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발상을 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말을 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지고 있다."라며 학생들의 성장에 대해 언급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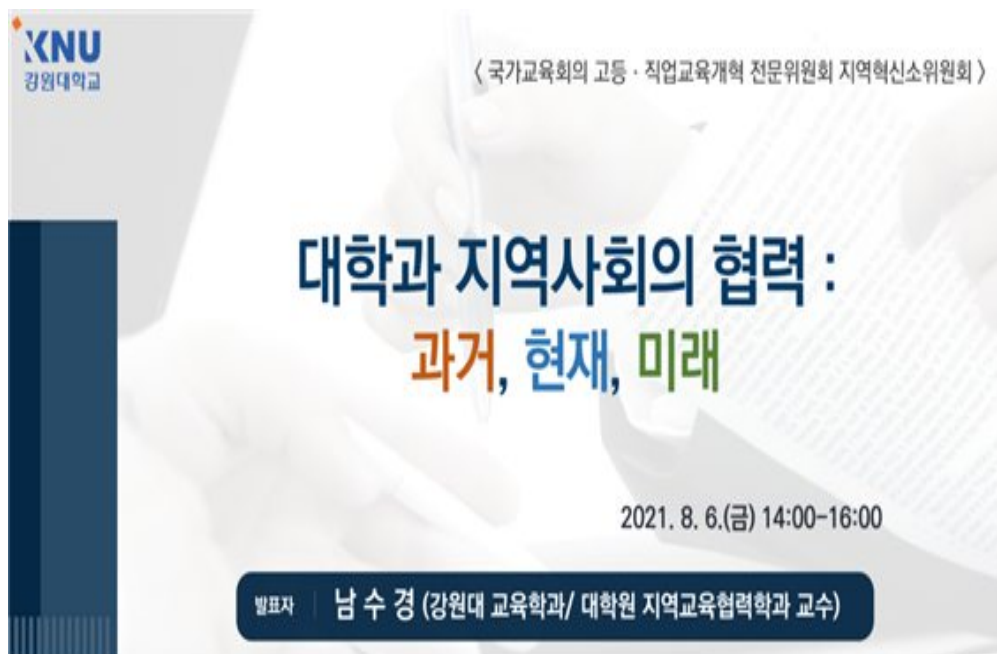


지금 지역교육협력학과에서는

#7월행사 #지역과협력하는 #교육연구소

2021년 국가교육회의 지역혁신소위원회 참석

- 일시** 2021년 8월 6일(금) 14시-16시
- 장소** 비대면(Zoom 기반 화상회의)
- 내용** 국가교육회의 지역혁신소위원회에서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 발표



2021 국립대학 육성사업

SuperVision for Gangwon

행복교육지구사업

종합평가보고서 5종 발간

(원주, 영월, 인제, 정선, 철원교육지원청)



자세한 내용은
QR 코드 참고!

강원도 중학생의
학력향상과
진학 및 진로에
대한 동기 부여

강원도 내 현장
교사와 사범대 학생
간 멘토-멘티 활동을
통한 사범대생의 원격
교육 전문성 강화

방학기간
주기적
학습지도로
학습 태도 개선

강원대학교 사범대
학생에게 지역사회
교육봉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이해 및
국립대 공공성 확보

2021

Teach for Gangwon

“강원대학교 사범대학과 함께 하는
강원도 중학생 기초학력 든든 프로그램”



지도 교과목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역사
총 6개 과목



참여대상

기초학력 증진, 학업의욕
고취, 학습태도의 형성 등이
필요한 **강원도 지역의 중학생**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우선 선발)



멘토링 내용과 방법

교과목별 신청 상황에 따라
멘토와 멘티 1:1 또는 1:3 수준
소수 정예 맞춤형 원격지도

(1인 최대 2과목 선택)



참여 특전

교과에 대한 지도는
“전액 무료”로 진행

1차 여름 방학 : 2021년 7월 21일 ~8월 8일 주 3회×2주 (총 6시간)
2차 겨울 방학 : 2022년 1월~2월 주 2회×6주 (총 12시간)

신청 방법

학교별로 중학생 수요 조사를 기반으로 별도 양식 (향후
신청기간 및 양식은 공문으로 송부)으로 담당교사가 신청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학교의 소재지, 학교별 참가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대학에서 선정함
여름방학에 선정되지 못한 학생은 겨울방학에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음

프로그램 운영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ZOOM)

* 코로나19나 강원대학교의
사정에 따라 구체적인 진행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